

▶ 에헤야~ 물맛이가세... '2017 전주단오' 30일부터 이틀간 덕진공원서

# 창포물에 머리감고 민속놀이도 즐겨보세요

올해, 보는 축제서 벗어나 세시풍속 체험으로 채워져

시민갤러리서 명인부채전 단오음식체험 등도 마련

행사 첫날 민속씨름대회 개최 전통놀이 체험 등 행사 다채

전주시의 대표적인 절기 행사인 '2017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30~31일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주단오 행사는 천년전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전주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세시풍속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축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주시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행사로 손꼽혀 왔다.

'에헤야 전주단오! 덕진공원 물맛이가세'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단순한 보는 축제에서 벗어나 단오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특히 전주단오의 대표 프로그램인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창포 족욕체험 등 단오 물맛이 행사의 규모를 늘리고, 단오이야기를 들려줄 문화해설사를 배치해 행사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인다.

단오 풍류체험으로는 단오물맛이를 비롯해 단오화장, 단오선(부채), 단오등에 소원달기, 짚풀공예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한 전주시민갤러리에서는 단오명인부채전이 펼쳐져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을 비롯한 12명의 부채 장인들의 부채



'2017 전주단오' 행사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전주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주단오 행사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창포물에 머리감기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작품 33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부채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및 체험도 마련된다. 추억의 주전부리 뽕튀기·엿치기, 단오절 쑥을 이용한 인절미 떡메치기, 여름을 잘 나기 위해 마셨던 앵두오미자 음료를 시음해 볼 수 있는 단오시절음식 체험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단오날인 오는 30일에는 전주시 33개동 대표 선수가 참여해 최고의 씨름 장사를

밟는 단오 민속놀이 씨름대회가 열린다. 또 각 동 대표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그네를 멀리 뛰는 그네뛰기대회와 옷놀이대회, 일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제기차기와 투호 등의 전통놀이 체험과 다채로운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오풍류공연에는 26개 공연 예술단체가 참여해 노래와 댄스·민요 등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체험으로 발관리 서비스와 건강상

담,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촬영도 진행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농번기를 마치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 위해 전주덕진연못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던 전주단오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선조들의 지혜와 흥이 담긴 세시풍속놀이를 함께 즐기는 대동풍류 한마당으로 준비한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영상위, 26일까지 영화종합촬영소 진로체험 진행

완산중 등 4개학교 학생 참여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지역 청소년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24~26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일대에서 진행한다.

전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업무 협력 활성을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완산중학교 외 4개 학교 305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진로직업체험'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화관련 진로 선택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견학 및 체험, 영화관련 볼거리로 짜여졌다.

프로그램은 영화(입북동)(주연 정지훈, 강소리)세트 투어를 비롯해 촬영시설 프로세스·영화특수분장·영화촬영감독·영



화판도미임·영화미술·핸드프린팅 체험 등 학생들이 유익하고 다양 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영화 소품전시실 관람 및 영화의상 및 특수소품체험, 전주(전북)에서 촬영한 영화의 촬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로케이션 사진전, 나도 영화배우 포토존 등도 진로체험으로 이뤄진다. /정해은 기자

## 서점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벤트 봇물

인터파크도서, 내달 10일까지 기획전 예스24, 대통령 정책 담은 책 등 소개

서점가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이벤트로 분주하다.

인터파크도서는 6월 10일까지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기획전을 연다. 행사 기간 문 대통령 및 정치사회 추천도서 30여종 구매시 플랜 노트, 스테들러 연필 등을 준다.

또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댓글로 달면 추천을 통해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알라딘은 6월 9일까지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뉴시스



예스24도 문 대통령의 삶, 정책을 볼 수 있는 책들과 국민들이 꿈꾸는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소개하는 책들을 모아 진행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네덜란드 출신 팝재즈계 스타



바우터 하멜 "전주 온다"

유럽을 대표하는 감미로운 음색의 팝재즈계 아이돌 바우터 하멜이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하멜은 앨범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워 만큼 음악성과 대중성을 가진 팝재즈계의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Mr. Silky Voic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07년 데뷔 앨범 <Hamel>발매로 네덜란드 미디어와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도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매년 봄마다 음원차트를 역

26일 소리문화전당서 새앨범 발매 기념으로 주행 하는 이 앨범의 수록곡 'Breezy'는 대중들의 식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2009년 발매된 <Nobody's Tune>의 수록곡 'One More Time On The Merry-Go-Round', 'March, April, May' 등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데뷔 앨범 이후 연속으로 플래티넘 앨범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정규 스튜디오 앨범 <Pompadour>를 발매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11월에는 tvN 프로그램 '노래의 탄생'에 원곡자로 깜짝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하는 앨범 발매 기념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열리며, 서울재즈페스티벌 출연을 제외한 유일한 국내 단독공연이다.

티켓은 전석 4만4천원. /정해은 기자

## 군산시, 3·1운동 관련 유물 공모 진행

현재 건립 중인 3.1운동체험교육관의 내부 전시를 위해 군산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3.1운동과 관련된 유물의 공모에 나선다.

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기증받아 3.1운동체험교육관에 전시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공유되며 백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진취적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군산 3.1운동기념관 관련 인물 및 스토리, 유물 및 기록, 사진 등의 자료로써 군산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도 함께 공모하며 내달 한달 동안 중점 수집기간을 운영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3.1운동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시민 개개인들의 기억 한 부분이 군산시의 전통이 되고 미래를 가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개인의 역사가 모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3.1운동체험교육관은 총예산 30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69.2㎡의 지상 3층 건물로 1, 2층은 전시실과 영상실, 3층은 체험교육관과 기념추모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25%의 공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바쁘고 지친 일상엔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